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80원 상승한 1,125.10원에 마감

4일 환율은 전일대비 4.80원 상승한 1,125.1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6.70원 오른 1,127.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오후에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을 축소하자 환율은 상승폭을 줄이며 전일대비 4.80원 상승한 1,125.1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50.14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27.00	1128.80	1123.60	1125.10	1126.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46.45	1054.62	1046.22	1047.0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1.19	1360.22	1345.62	1346.7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8	-0.75	-1.57	-3.29
결제환율(수입)	0.26	0.49	0.4	0.14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파월 의장 발언 실망감에 글로벌 리스크 오프... 1,13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5원) 고려 시,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25.10원) 대비 5.40원 상승한 1,130.55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파월 의장 발언 실망감에 위험선호심리가 훼손되고 달러 강세로 상승이 예상된다. 파월 의장은 무질서한 채권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금리 수준보다 전반적인 금융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시장이 기대하던 자산매입 듀레이션 조정 같은 정책대응에 대한 언급을 배제하면서 시장 기대를 외면하였다. 이에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7.89bp 급등하여 1.564%를 기록하였고, 뉴욕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글로벌 리스크 오프 분위기는 금일 외국인 국내증시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다만, 중공업 수주 물량 등 이월 네고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장중 원화 약세를 최대한 방어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27.00 ~ 1133.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9292.6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40원 ↑
	■ 美 다우지수 : 30924.14, -345.95p(-1.1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2.53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969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